



2026
KAU
입학수기공모전
모음집

새상을 향한 내 꿈을 향한 기회

KAU
Korea Aerospace University

Create New Routes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특성화대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과 우주라는 넓은 무대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목표를 향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공과대학 이○우 4

힘든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

자유전공학부 손○서 7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에 대한 변명’ 이 아닌 ‘나의 노력’

AI융합대학 김○ 10

저의 합격요인은 역설적이게도 ‘실패를 대하는 유연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항공·경영대학 권○희 12

비로소 마주한 하늘에, 이윽고 파란 날개로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AI융합대학 장○지 14

고된 수험 생활은, 드넓은 하늘을 마주하기 위해 활주로를 전력질주 하는 시간

자유전공학부 조○윤 16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진짜 비행을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공·경영대학 박○빈 19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한국항공대를 만나고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인재가 될 나의 모습

시용합대학 김○원 21

논술 전형은 꾸준히 양을 정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적어보는 사람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자유전공학부 류○인 23

후회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남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경영대학 김○연 25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의 시간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공과대학 홍○아 27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있을 대학 생활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공과대학 김○송 30

입시라는 긴 여정을 지나며 제가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

시용합대학 김○해 32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합격 결과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공과대학 이오우
(해동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제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결과 이전에 그 과정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저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한 가지 기준만큼은 분명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느끼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맡은 역할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습니다) 이러한 기준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공군이라는 진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는 많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이며, 그 안에서 맡은 역할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저의 가치관과 맞아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조국과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한때는 조종사와 같은 직무를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무안항공 사고는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학교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비행기 사고의 위력을 상당히 느꼈고 그때 충격이 저에게 항공기 정비에 관해 큰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연히 시청하게 된 EBS 다큐프라임의 한 장면은 저의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비행기 기체 내부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수많은 전선과 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특히 단순히 복잡해 보인다는 느낌을 넘어서, 그 모든 장치가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항공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이후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스스로 항공기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계통, 유압 장치,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작은 이상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확신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역할이야말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온 '책임'이라는 가치와 가장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탐색 끝에 저는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항공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성향을 실제 역량으로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이론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비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루는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저는 장기적으로 공군 또는 항공 분야에서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과 끝까지 확인하는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태도의 중요성을 느껴왔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한국항공대학교와 항공정비 전공은 단순한 진학 선택이 아니라, 제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의 시작은 솔직히 모범적인 학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 2학년 시절 저는 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했고, 내신 관리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해야 할 공부의 의미를 깊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목표로 자리 잡고, '한국항공대학교'라는 대학을 현실적인 목표로 인식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기대감이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다면 선택의 폭이 넓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전형을 찾아보던 중 '논술 전형'이라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전형에 모든 집중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단순한 암기나 내신 성적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항공대학교 기출 논술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의 형식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공개되어 있던 최근 3개년에서 4개년의 항공대학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문제의 출제 방식과 요구하는 사고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런 풀이가 필요한지', '어떤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후에는 항공대학교 기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위권 대학들의 수리논술 기출 문제를 최소 3개년 이상씩 풀어보며 다양한 유형에 대한 적응력을 키웠습니다. 학교마다 문제의 스타일과 요구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조를 분석하려고 했던 경험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저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틀린 문제와 막혔던 문제들을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실수가 발생하는지, 어떤 개념이 약한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점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졌던 논술 문제가 점차 '풀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았던 글씨체도 끊임없이 수학식을 쓰고, 하나라도 더 쓰려고 노력하다보니 어느샌가 예쁜 글씨체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집요함'이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수학 실력이 부족함을 느꼈고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풀 수 있는 논술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합격 결과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스스로 방향을 설

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항공정비 분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책임을 요구하는 항공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한국항공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단순한 문제 풀이량이나 특정 과목의 성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능수 능철을 맞추기 위한 공부와 논술 준비를 병행하면서, 단순히 많이 푸는 것보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시절 내신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 흔히 말하는 '호머식 채점'처럼 "이건 실수니까 사실상 맞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편해지지만, 결국 틀린 이유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고, 실력이 늘고 있다는 착각만 한 채 정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서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틀린 문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틀린 문제를 단순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끝까지 파고들고, 제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쉬운 문제를 틀렸을 때조차 "이 정도는 원래 맞는 문제"라고 넘기지 않고, 그 문제 옆에 다시 개념을 정리하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세운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백 번을 풀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아직 '아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점점 실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조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실제 실력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계산 실수에 대한 징크스'를 극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대충 방향은 맞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정을 생략하거나 빠르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논술 준비를 시작하면서는 어떤 문제든지 계산 과정을 절대 건너뛰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가며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산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실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공부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이해를 목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입시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분야를 배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말한 두가지중 첫 번째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한다면 수학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과목이라도 분명히 실력이 늘거라고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1지망으로 꿈꿔왔던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연히 목표만 생각하던 학교에 실제로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그만큼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학교'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와 활동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진심으로 즐기고 몰입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학생회 역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항공'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관 옆에 실제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실습 환경과 시설을 접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항공대에 와 있구나"라는 실감이 듭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진로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항공 특화 교육과 활동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이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는 로켓 동아리 SRS 설명회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단순한 동아리 소개를 넘어 선배들과 직접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 학교에서는 항공 분야에 대해 '깊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누고, 현실적인 진로 고민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은 한국항공대학교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고, 지하철 접근성도 좋아 조금만 이동하면 여러 문화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고, 다시 학업이나 진로 탐구에 집중할 때는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진로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이 단

순한 대학 생활이 아니라, 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고,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쌓아가게 될지 스스로도 궁금해집니다. 항공 분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이처럼 놀 때는 확실히 즐기고, 공부할 때와 진로를 고민할 때는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의 생활을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학교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모두 항공쪽으로 열정 가득하고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더 느꼈습니다. 교육과정도 자신이 원하는 진로쪽으로 확실히 구상하고 깊게 공부할수있어 항공우주쪽 진로를 꿈꾸고 있다면 항공대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학교는 밴드부도 종류별로 정말 다양하고 밴드마다 개성도 강하고 모두 음악쪽으로 정말 진심인 분들이라 음악을 좋아한다면 학교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학교 과감도 예쁘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모두 좋은 대학이라 말씀 해주셔서 향대생으로서 자부심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항공대 오셔서 즐거운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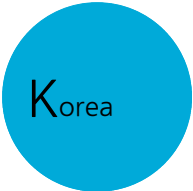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결국 저는 학업 역량, 학습 태도,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자유전공학부 손○서
(초지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여러분은 방위 산업에 대해 아시나요? 처음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저는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 '전쟁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읽은 이후, 이 질문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책은 전쟁의 참혹함을 나열하기보다, 오히려 왜 전쟁이 반복되는 지에 대해 인간의 본성과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통해 전쟁이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힘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방위 산업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위 산업은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고 위기를 억제하는 기술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오히려 '평화를 위한 준비'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공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공학에 대한 저의 관심과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공학은 단순히 편리함을 만드는 학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방위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공학 기술이 곧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공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는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학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진법 계산기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논리의 원리를 실제 회로로 구현해보았고, 이를 통해 이론이 현실의 기술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MBL 센서를 활용한 실험에서는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하며, 공학이 얼마나 '정확한 근거' 위에서 작동하는 학문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단순한

지식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의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며 해결책을 탐색하는 '공학적 사고'를 익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이야말로 이러한 융합적 사고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분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공우주, 전자, 기계, 재료 등 다양한 공학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중요한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이 다양한 공학 분야 중,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충분한 탐구를 통해 스스로의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자유전공학부였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저에게 '가능성을 유보하는 선택'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장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양한 공학 기초를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하고, 여러 분야를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 및 방위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학문적 환경은 저의 목표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자유전공학부에서 폭넓은 공학 적 기반을 다지며, 특히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춘 공학 연구원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방위 산업이란 무엇일까?'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은 저에게 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기술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공학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바로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라고 확신합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진로를 구

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목표에 걸맞은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 과목에 걸쳐 균형 잡힌 성취를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저는 특정 과목에 치우치기보다 전반적인 학업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전 과목에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학업에 대한 성실성과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3학년에 들어 학업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도 성적의 일시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학습 흐름을 정비하며 끝까지 전 과목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취의 핵심이 '이해 중심의 학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제 풀이에 집중하기보다, 개념이 형성되는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는 공식의 암기가 아닌 개념 간의 연결을 이해하려 했고, 국어와 사회 과목에서는 글의 논리 구조와 맥락을 분석하며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서로 다른 과목을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사고 체계로 연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메타인지 능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내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로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며 내신을 챙겼습니다. 무작정 학원을 다니는 것만이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원을 다니며 학원 선생님들이 챙겨주는 문제만을 풀고 필기하라는 것만 필기하고 암기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문제집을 풀며 모르는 부분은 바로 선생님께 물어보기보다 문제와 싸움을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꼼꼼히 고민해보고, 다시 풀어서 틀렸더라도 왜 틀렸는지 고민해보고, 또 다시 풀어보는 과정에서 조금은 힘들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머리에는 그 개념과 문제가 확실하게 각인되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 손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며 공부해야 합니다. 손이 아프더라도 눈으로만 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문제가 있으면 왜 틀렸는지 펜으로 선지마다 관련 개념과 오답 이유를 적는 것이 암기와 이해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거의 전과목에 걸쳐서 문제집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선지마다 파란색 펜으로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오답도 정리했습니다. 또한 암기를 할 때에는 무조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며 외우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잠도 덜 오고 암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 시간 자체를 가장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여기고, 주어지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발표, 토의, 토론, 질의응답과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순히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능력과,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태도를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표 활동에서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핵심을 선별하고 구조를 정리하는 연습을 반복했으며, 이는 자연

스럽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공학 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학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복잡한 상황을 구조화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전 과목에 걸친 균형 잡힌 학업 성취와 더불어,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확장하는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쌓아온 기초 역량은 자유전공학부에서 다양한 공학 분야를 탐구하고, 궁극적으로 방위 산업 분야에 기여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은 단순한 성적이나 결과라 아니라, 그 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학습 태도와 자기 관리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학업에 있어 꾸준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전 과목에 걸쳐 안정적인 성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단기간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매일의 학습을 일정한 밀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며, 어떤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성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깊이를 동시에 향상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업 성취를 유지하는 데 있어 '멘탈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이 있더라도,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이 일기에는 단순한 감정 기록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학습 과정과 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함께 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어떤 방식의 공부가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다음 날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저의 학습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기를 통해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은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적의 일시적인 하락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을 때에도,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분석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학업 역량, 학습 태도,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노력과 습관이 단순한 결과를 넘어, 앞으로 자유전공학부에서 요구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탐색 과정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우선 입시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았습니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 때마다 ‘아,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지..’, ‘이 문제 정답 바꾸지 말걸..’ ‘그 때 좀 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와 같은 잡다한 후회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고 이 불안이 다음 시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다 끝낸 입장에서 바라 보면 이런 후회와 불안이 정말 쓸데없고 부질 없었 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 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수 도, 조금 바보같은 짓을 할수도,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무모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거에만 계속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게 부정적인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는 돌아보지 말고, 내 앞으로 의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후회는 나의 발전과 성찰에 도움이 되지만, 과거에 갇혀서 후회만 반복하는 것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 다. 여러분도 입시를 치루며 후회되는 일이 생길수 도 있겠지만 어차피 과거로 갔어도 같은 선택을 했 을테니 뒤는 돌아보지 말고, 미래형서 기다리고 있 을 나 자신을 위해 앞만 보고! 희망을 가지며 노력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처해있더라 도 계속 노력하다보면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또 한 저는 등가교환의 법칙에 대해 완전 동의하는데 요. 무언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싶다면, 안타깝 게도 무언가 잃는게 있어야합니다. 저는 한국항공대 학교를 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으로 힘들도 있었고, 공부하느라 친구들과의 약속에 별로 나가지 못 해서 친구들과 조금 멀어진 적도, 잠을 잘 못 자며 공부해서 면역력이 약해져 육체적 으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항공대학교 에 합격해서 이와 같은 고통은 다 씻겨져 나갔습니 다. 오히려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힘든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이였습니다. 예비 현대인 분들,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예비 현대인들 을 위한 꿈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거예요!

◆ 기타 사랑하고 싶은 말

저는 지금까지의 성취에 안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 에게 부족한 점을 묻고 이를 보완해 나가려 노력해 왔습니다. 학업, 탐구 활동,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 관까지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저를 단순히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학생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 히 저는 결과보다 ‘성장하는 방식’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새로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빠르게 적응하고, 스스로 방 향을 설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이어졌습니 다. 자유전공학부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곳이 아 니라, 스스로 길을 설계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까지 길러온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꾸준한 자기 성찰의 습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저만의 방향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 공학부에서 꿈같은 학교 생활을 저와 함께 누리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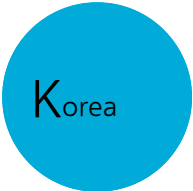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여러분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때로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도, 그 길 위에서 쌓이는 모든 탐구와 고민이 결국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합격의 무기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시용합대학 김○
(신일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시용합대학에 합격한 26학번 김○입니다. 저는 반수를 통해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작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쉽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 작년 한 해 반수를 하며 다시 같은 전형으로 도전하여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보려 합니다. 제가 시용합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인공지능이 '유망한 분야'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세 가지 분야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관련 신문과 학술지, 인터넷 기사들을 스스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AI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기술의 흐름을 창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 열망이 3년간의 고교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학급 학술분석 발표회에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 블록체인인 P2P 네트워크, 빅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을 직접 탐구하고 발표했습니다. 2학년에는 양자컴퓨팅연구소 동아리에서 벡터의 사칙연산, 가우스 소거법, 하다마드 게이트와 CNOT 게이트 등 양자 컴퓨터의 수학적 토대를 팀원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3학년에는 물리공학인재반 프로그램에 참여해 초저궤도 위성의 추락 문제에 AI를 도입하는 해결책을 고안하는 등, 매 학년마다 탐구의 깊이를 더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거치면서 저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AI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사회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이 한국항공대학교 시용합대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항공대는 단순히 항공 분야만을 다루는 학교가 아닙니다. 전자통신공학, 소프트웨어, AI 융합 ICT까지,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도입된 전공자유선택제와 복수전공 의무제는, 아직 세부진로를 탐색 중인 저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제도였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학생부종합전형, 구체적으로는 미래인재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전형은 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제 준비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를 '연결된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번 배운 개념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확장하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학급 학술분석 발표회에서 RNN과 CNN을 공부한 것이 2학년 동아리 시간에 '양자 컴퓨터로 에너지 효율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주제의 탐구로 이어졌고, 3학년 공학기술 융합주제탐구에서 초구공 궤도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며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융합하는 활동으로 또한 이어졌습니다. 저는 면접관이 생기부를 읽었을 때, 각 활동이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성장 서사로 읽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 정리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저는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두괄식(개념 다음 예시 또는 추가 설명) 형식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 기울기 소실 문제, LSTM, 경사하강법, 베이지 정리, 양자 회로의 하다마드 게이트와 얽힘 등 생기부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을 직접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면접에서 빛을 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 질문 준비와 실전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생기부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며 예상 질문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생기부 내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뿐 아니라, 지원 동기, 학과 관심도, 진로 관심도, 인성 질문까지 광범위하게 준비했습니다. 답

변을 작성할 때는 ‘동기 → 역할 → 배운 점 → 성장한 방향’의 흐름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놓고 혼자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실제 항공대 면접 경험에 빚대어 봤을 때 항공대 면접이 꼬리 질문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생기부 활동에 대해 진솔하게 물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평소 제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탐구의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1, 2학년 때는 다소 저조했지만 3학년 때 크게 끌어올렸던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에서 실제로 ‘성적이 낮았는데 어떻게 3학년 때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매일 자체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부족한 시험 대비를 극복했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저는 활동을 단지 ‘했다’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한계를 인식하고 다음 탐구로 연결했습니다. 축구공 궤도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마찰력 등 외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대학 진학 후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Grafana를 직접 다루보지 못한 것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도구를 왜 탐구했는지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면접관은 완벽한 지식보다,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할도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간 임원 생활을 하며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사고 방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항공대의 인재상인 통섭융합역량, 전문탐구역량, 윤리인성역량과 제 역량이 일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학교입니다. ‘항공대’라는 이름 때문에 조종사나 항공 관련 직종으로만 진출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우주공학 등 첨단 공학의 모든 분야가 한 캠퍼스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중앙에 실제 비행기가 서 있는 풍경은, 이곳이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꿈이 모인 공간임을 매일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께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항공대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입니다. 실제 면접 후기를 보면 항공대는 성적에 대한 질문보다 고교 시절 어떤 부분에 열정을 쏟았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더 많이 물어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온 활동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연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생기부 관리에 있어서도, 활동의 양보다 연결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의 탐구가 다음 탐구로 이어지는 흐름, 교과 개념이 비교과 탐구로 확장되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생기부에 잘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활동마다 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발표 자료나 제출 결과물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면접 준비 때 그 자료들이 기억을 되살려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저는 재작년에 한 번 떨어지고, 반수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1년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제 탐구를 더 깊이 다듬을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훨씬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과 쌓아가는 탐구의 기록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신의 활동을 진심으로 믿고,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펼쳐 보이길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후배로 반갑게 만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면접을 마치고 나오던 날, 교정 한가운데에 세워진 항공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재작년의 불합격, 반수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들이 한꺼번에 스쳐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그 시간이 그저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왜 이 학교여야 하는지, 왜 머신러닝 엔지니어여야 하는지를 훨씬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연히 컴퓨터 공학에 흥미를 느꼈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그것을 인공지능이라는 방향으로 구체화해갔습니다. 1학년 때는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탐구하며 기초 개념을 쌓았고, 2학년 때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며 어려운 개념들을 모둠원들과 함께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학년 때는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을 넘나드는 융합 탐구를 진행하며 제가 얼마나 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우회로가 다 의미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때로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도, 그 길 위에서 쌓이는 모든 탐구와 고민이 결국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합격의 무기입니다. 내년 이맘때 같은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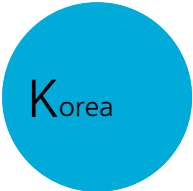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마치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미래의 좋은 결과로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2026학년도 정시전형

항공경영대학 권○희
(신갈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하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가끔 심심할 때면 어떤 건물이든 옥상에 올라가 보고 싶어 문이 열려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대부분 굳게 잠겨 있어 그 앞에서 아쉬움을 삼켰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때문인지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항공기 조종사를 꿈꿨지만,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라는 꿈을 잊고 살 때도 국내보다는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에 한 번도 나가 보지 못했던 저에게 외국은 늘 환상의 대상이었고, 덕분에 영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겁도 없이 외국 인들과 랜덤 통화를 시도할 만큼 영어에 대한 열정도 컸습니다. 영어는 단순히 과목이 아니라 저의 취미였고 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제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기에,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극 중 배우가 관제사로 등장해 유창한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잊고 있던 항공 분야에 대한 동경과 영어를 좋아하는 제 적성에 딱 맞는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준비하던 다른 분야가 있어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본 후 원서를 접수하던 시기, 처음으로 방문한 인천공항은 압도적인 규모와 우리나라 건축의 정수 같은 아름다움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제 적성을 살리면서 공학이라는 멋진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관제사라는 직업에 강력한 이끌림을 느꼈고, 그날 이후 항공교통 분야라는 구체적인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의 출발선은 남들보다 훨씬 뒤쳐져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공부를 소홀히 했던 탓에 고등학생이 되어야야 중학교 기초 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했고, 그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내신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정시 공부를 시작

했지만, 현역 시절 받아든 성적표는 부모님조차 재수를 만류하실 정도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단지 몇 문제 차이로 아쉬운 수준이 아니었기에, 재수라는 선택은 저의 독선이자 욕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저는 ‘독학 재수’라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학원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집중하느라 영어 공부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웠던 저는 감각을 잃지 않으려 매일 아침과 이동 시간에 영어 팟캐스트를 청취하며 귀를 틔웠습니다. 수학은 기초부터 시작해 기출 심화 순서로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국어는 인강에 의존하기보다 기출 분석지를 활용해 저만의 방식으로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정해진 루틴대로 지문을 읽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두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암기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6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개념 정리에 집중했고, 이후에는 기출과 심화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오답과 관련 핵심 개념을 함께 정리한 수학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틈틈이 복기하며 실수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탐구 역시 틀린 문제를 스크랩하여 관련 개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노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저의 합격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실패’에 대한 유연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할 무렵, 친구들은 이미 좋은 결과를 거두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저를 채찍질하는 자극제로 삼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저 자신을 다잡고 정진하는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9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급락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크게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저는 이를 '내가 약한 부분을 수능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로 정의했습니다. 성적에 연연하는 대신 틀린 문제를 해부하며 놓친 개념의 구멍을 메워나갔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파고 들었던 독학의 시간이 수능 당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유명 재수 학원이 아닌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타이틀 관리 속에서도 휴가권과 휴식권 제도가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든 날이면 조금 일찍 일과를 마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휴가권을 사용해 친구들과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부에 대해 지나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긴 재수 생활 동안 슬럼프 없이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항공대처럼 특화된 대학교를 지망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합니다. 입시 준비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겠지만, 항공대는 그 터널을 지나는 '준비된 자'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푸는 학교입니다. 오직 항공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실습 환경과 항공 분야에 진심인 동료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고생을 보상해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항공대만의 여러 공모전과 동아리에 참여해 보시고, 이곳에만 있는 특색 있는 수업들을 최대한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가끔 저도 대학생이 된 제 모습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3 시절이나 재수생 시절에는 대학 생활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엿한 소속감을 느끼며 대학생다운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과거의 저 자신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마치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미래의 좋은 결과로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재수를 시작할 무렵, 이미 여러 실패를 경험해왔기에 '나는 머리가 좋지 않으니 해도 안 될지도 몰라'라는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약한 태도는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혼자 힘으로 기초부터 다시 일궈내 좋은 성적을 얻고 항공대에 합격한 이 경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자 자산입니다. 과거의 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항공대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이 학교는 제 안에 커다란 성취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건 절대 불가능해'라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남들의 속도보다 늦춰진다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만의 속도로 목적지까지 완주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속도를 믿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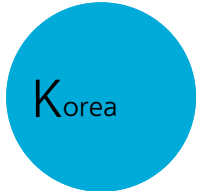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간절히 원하는 만큼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에 몰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마주한 하늘에, 이윽고 파란 날개로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2026학년도 수시전형

시용합대학 장○지
(송림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 논술 전형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시용합대학에 합격한 26학번 장○지입니다. 어렸을 때의 저는 막연하게 공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영화 '마션'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비행기와 로켓 등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켓이 어떤 힘으로 중력을 이기고 발사되는지, 비행기는 어떤 원리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러한 궁금증은 항공 우주 분야를 진로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내신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리 논술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시기가 늦었던 만큼 첫 도전에서는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수를 통해 타 대학의 바이오 관련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의 학업은 쉽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삼반수를 결심하고 수리 논술 전형에만 집중하여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 분야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한국항공대학교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용합대학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장 잘 맞는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고등학생 때 수학 4등급인 학생이었습니다. 저의 학습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초의 구조화'입니다. 저는 수리 논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학 개념의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학 I, 수학 II, 미적분을 『수학의 정석』 교재로 다시 학습하며 모든

문제를 노트에 직접 풀이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념과 풀이 과정을 정리한 개념 노트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수능 기출 문제로 일명 양치기를 하며 문제 풀이 능력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수학의 실력이 곧 수리 논술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초를 다지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답안 작성 능력의 체화'입니다. 수능 수학교로 다진 사고력을 논술 답안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논술학원을 통해 기본적인 풀이 구조와 답안 작성 방식을 익힌 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모범 답안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논리적인 서술과 감점 요소를 줄이는 표현 방식을 고민하며 답안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 기반 보완과 실전 연습'입니다. 저는 인서울 주요 대학의 약 5개년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를 모두 풀고 답안을 작성한 뒤 학원의 첨삭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첨삭 이후의 과정이었습니다. 피드백을 반영하여 답안을 다시 작성하고, 부족했던 점, 감점 요소, 불필요한 서술, 반복되는 실수 등을 개념 노트에 정리해 틈틈이 확인하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또한 취약한 유형은 관련 문제를 모아 반복적으로 풀이하며 집중 보완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실전 연습을 반복하며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생각하는 합격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한 판단력, 둘째는 감점 요소를 놓치지 않는 디테일 관리입니다. 먼저, 시험장에서의 판단력입니다. 실제 논술 시험 당시, 한 소문항에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던 중 풀이 과정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긴장과 시간 압박으로 인해 오류

의 원인을 즉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완벽하게 해결하자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남은 문제들을 차분하게 풀어낸 뒤, 시간이 남아 다시 해당 문항으로 돌아가 풀이를 처음부터 점검했고, 결국 오류를 찾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시험에서는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판단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디테일 관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 단순히 많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점은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루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절댓값 처리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끝까지 의식하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러한 감점 요소들을 평소 개념 노트에 따로 정리해두고 반복해서 확인하며 실수하지 않도록 습관화했고, 이러한 준비가 시험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시험 상황에서의 침착한 문제 선택과, 감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테일 관리가 합격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최저학력기준을 수학과 영어로 충족했기 때문에, 두 과목 공부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앞서 말했듯이 개념과 기출을 공부한 뒤 인강 강사들의 N제를 구매해 풀면서는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나의 풀이와 강사의 풀이를 비교하며 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실전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며 풀었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막히면 넘어갈지 말지 등 저만의 행동 강령을 미리 만들어두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영어는 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해 매일 단어 50개 암기와 지문 8개 읽기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처럼 어려운 유형은 기출 문제집에서 해당 유형만 집중적으로 반복하며 수능적 사고방식을 익혔습니다. 특히 영어는 듣기 평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 때부터 듣기를 포함한 풀 세트로 연습하며 실제 시험 환경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만의 매력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잉, 에어버스101, 한진공모전처럼 항공 우주 분야에 특화된 양질의 공모전이 있습니다. 수상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항공’대학교의 이름과 걸맞게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송골매, 열기구 동아리 라퓨타처럼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항공 분과 동아리도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한국항공대학교에는 많다는 것이 우리 학교의 특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꼭 활용해보세요. 수강 신청부터 공모전 정보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선배가 직접 챙겨주고, 학업이나 인간관계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어 낯선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긴 입시였고,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기

는 동안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실패자라 느끼며 뒤처진다는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합격 화면을 마주한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힘들을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만큼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에 몰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마주한 하늘에, 이윽고 파란 날개로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캠퍼스 규모가 작아서 처음에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편리하고, 학생 수가 적은 만큼 동기들과 더 끈끈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큰 장점입니다. 학교 근처에 변화가는 없지만, 20분만 나가면 홍대입구와 신촌이 있어 캠퍼스 라이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할 때는 집중하고 놀 때는 제대로 놀 수 있는 균형 잡힌 환경입니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된 수험 생활은, 어쩌면 이 드넓은 하늘을 마주하기 위해 활주로를 전력 질주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긴 달리기 끝에 마주할 항공대의 하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파랗고 넓은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늘 위에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 푸른 날개를 힘차게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어 헤매는 학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자유전공학부 조○윤
(해동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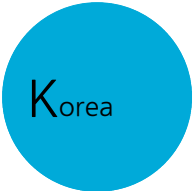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한 26학번 조○윤입니다. 저는 본래 화학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던 이과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생활기록부를 화학공학 관련 실험과 독서, 탐구 활동으로 빼곡히 채워왔고, 부모님과 담임선생님 역시 제가 당연히 그 길을 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입 원서 접수를 코앞에 둔 고3 수험생이 되자, '진정으로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화학공학이라는 진로를 정말 내 순수한 자의로 선택한 것일까? 그 저 성적에 맞춰서, 혹은 지금까지 쌓아온 3년의 기록이 아까워 관성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닐까? 평생 이 학문을 탐구하며 가슴 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고민은 생각할 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고 바쁘게 내신, 생기부, 수능을 준비하던 저에게 고민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시 원서 접수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저에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삼촌께서 한국항공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항공 분야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지만, 호기심에 찾아본 한국항공대학교와 항공우주 산업의 세계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선택지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저는 새로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공대에는 공학 계열부터, 항공 교통, 운항, 그리고 항공기 정비(MRO) 산업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화학공학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이 무궁무진한 갈래 길 앞에서 당장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다 입시요강 마지막부분에서 발견한 자유전공학부는 저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때는 어느 전공이든 원하는 수업을 듣고 2학년 때는 대부분의 전공을 자유롭게 2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등학교의 강제성을 벗어나 진

정으로 저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제가 입학한 전형은 교과우수자전형입니다. 추천인 제한이 없는 학교장추천전형 또한 존재했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우수자전형이 실질경쟁률이 더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과우수자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본래 화학공학과를 지망하던 학생였기 때문에 생기부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화학공학과 관련된 내용뿐이기에 교과전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유전공학부는 생기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높은 성적을 받는데 포커스를 두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우선 내신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자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 공부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해보니까 정말 수학은 결국 꾸준함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공부했습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해서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예 수학공부 시간으로 고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특히 어떤 개념을 이 문제에 맞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연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정확한 개념과 정의부터 머리 속에 완벽히 정리되도록 암기하여 모르는 개념이 없도록 하고, 바로바로 답지를 보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적어도 2-3번은 다시 도전해보려고 했습니다. 수학은 이해의 과목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본으로 탄탄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물론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정의됐는지 또 어디에 쓰이는 건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 없이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절대 킬러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초반에는 외우기만 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 기본에서 엄청난 구멍이 생겼음을 느끼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써야했습니다. 개념이 좀 잡혔다 싶을 때부터 암기와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앞서말했듯 수학도 결국 시발점은 암기이기엔 공식이랑 정의를 완벽하게 머리에 박아둬야 풀이 과정과 시간을 줄이고 정답까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연습 없이 잘하는 건 천외천들에게만 적용되는 소리고 저 같은 사람은 쉬운 문제라도 완벽해질 때까지 그리고 완벽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풀고 또 풀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본문제는 웬만한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결국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캐치해서 공부했습니다. 부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풀이를 아예 외워버리기까지 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친구들과 모르는 문제를 서로 설명해주며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개념도 친구들에게 설명하다보면 내가 어딜 몰라고 어딜 보충해야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에 설명해보기는 꼭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어인데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반고 기준으로 여학 계열 과목인 국어나 영어는 수능과 내신은 그냥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합니다. 문제풀이의 원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수능이 이해 중심이라면 내신 영어는 철저하게 암기와 분석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험 범위를 통째로 외우는 거지만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나간 진도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걸 1순위로 잡았습니다. 1회독 때는 단어장이나 어법책 없이 혼자 해석하며 내용을 파악하고 2회독 때는 분석지랑 강의를 보면서 어법을 꼼꼼히 챙기고 3회독 때는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엔 변형 문제를 진짜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풀었습니다. 양치기로 무한반복하면서 맨 앞 지문 한 문장만 봐도 전체 내용이 짝 떠오르는 경지에 오를 정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객관식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슬쩍 주시는 힌트 아니면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화제를 바꿔 국어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는 국어 수업은 두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의 판서와 설명하시는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필기했습니다. 문학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는 선생님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음으로 무조건 선생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나 인터넷에 있는 해석에 기대기보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1순위로 두고 공부하셔야합니다. 또한 독서나 화작은 정말 방법이 계속 읽으면서 글을 이해하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읽는 연습을 통해 지문 내용을 이해하면서 외울 정도로는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경지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얘기를 하자면 저는 수시를 쓴다고 해서 수능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시가 잘못돼도 정시로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시로 다져진 기본을 토

대로 수능의 문제 유형과 중요한 개념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은 문제풀이나 유형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인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애써 헤매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처음부터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만 맞춘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높은 확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저만 맞추면 된다는 단일한 생각은 여유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생긴 여유시간에 공부가 아닌 다른 요소에 매몰되어 오히려 공부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능이 끝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저 또한 이런 단단한 마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버티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생각하는 합격요인은 너무 뻑하게도 내신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결국 수치로 보이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기부내용이 뛰어나도 내신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등급을 보고 안심하고 합격할까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학종 등급이라는 통계적 함정에 거리지 마시고 내신을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유혹요소가 도사리더라도 그걸 참고 꾸준히 공부했던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시험기간 몇 주만 바짝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시험기간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개념을 다지고 시험기간일때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어려운 문제를 익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픈 부분은 수행평가입니다. 지필평가에만 매몰되어 수행평가를 소홀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문에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행평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메모하고 데드라인이 끝까지 전까지 수행평가를 완벽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예비 학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능동적인 항해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짜준 항로대로만 비행하면 됐지만, 대학교는 다릅니다. 이로부터 착륙까지, 그리고 어디로 날아갈지조차 오롯이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대학에 오시면 PPT를 직접 만들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귀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내 생각을 정리해서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고 복잡한 내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면서도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에 힘을 실는 연습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은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큰 힘이 됩니다. 대학에 오면 정말 다양한 사람



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등학교와 달리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다들 낯설고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통해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해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훨씬 편안하고 깊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학교 슬로건인 “비로소 마주한 하늘에, 이윽고 펼칠 파란의 날개로” 라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된 수험 생활은, 어쩌면 이 드넓은 하늘을 마주하기 위해 활주로를 전력 질주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긴 달리기 끝에 마주할 항공대의 하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파랗고 넓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늘 위에서 여러분이 준비한 그 푸른 날개를 힘차게 펼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의 현실에 매몰되어 헤매는 학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 또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진짜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닥도 아닌, 애매한 학생.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생각으로 저를 가득채웠다면 제가 이 한국항공대에 서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천재들이나 운에 따라 결정되는 불가피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10%까지는 재능과 운이 따라야한다고 하지만 상위11%까지는 그 어떤 재능도 기연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해보이고 전교권애들을 보면서 나는 안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폰을 끄고 책상에 앉아 책을 펴는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들과 노력이 모여 여러분의 강인함을 만들고 또 앞으로 나갈 자신감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한국항공대에 도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에는 어떤 대학들보다도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대이기에 있는 다양한 교육과 학과 커리큘럼이 있고 이미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많은 선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항공대에 입학해서 그저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동아리와 대외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선배와 동기를 만나고 다양한 교수님과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저를 기다리는 여러 이벤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 또한 한국항공대에 들어와 이런 설렘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비행기는 계속해서 선회를 합니다. 거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내립니다. 뚜렷한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비행기처럼 순탄한 비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학년도 정시전형

항공경영대학 박○빈
(광덕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린 시절 제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망했던 것을 돌아보면 항공, 철도와 같은 운송수단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화물을 나르는 거대한 교통수단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그 무엇보다 멀리, 높이 날아오르는 항공기에 대한 열정이 가장 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점점 구체적인 진로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고, 특히 항공기의 완전한 운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운항관리사라는 직업은 세계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교 졸업 당시에는 성적이 맞춰, 그리고 취업이 보장된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타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을 마치고 군 복무를 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은 제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보편적인 진로도 가치 있겠지만, 진정으로 어릴 때부터 마음 한편에 항상 자리 잡고 있던 항공을 향한 꿈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걸은 선배, 군 동기들의 조언과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전역 후 다시 수능을 준비했고, 그 결실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에 입학하여 제 삶의 향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항공대학교의 여러 전공들 중에서도 항공경영대학, 특히 항공교통전공에 매료된 이유는 시스템을 아우르는 통찰력 때문입니다. 직접 조종간을 잡는 운항이나 기체를 유지보수하는 정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공과대학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항공교통전공은 시스템 전체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공항의 지상부터 하늘의 항로까지,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항공 교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찰력이야말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경영대학 안에는 경영, 항공경영, 물류전공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함께 공부하면서 특성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정시 전형을 준비했기에 100% 반영되는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3 당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수능은 그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응시했었기에 수능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1년간의 대학생활, 2년간의 군 복무를 거치며 그나마 알고 있던 내용도 까먹은 상태였고, 흔히들 말하는 공부의 관성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적, 과탐에서 확통, 사탐으로 전향하면서 생선 처음 보는 탐구 개념들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는 늦은 시기까지 개념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전까지 문제 풀이보다는 전 과목의 개념을 한 번 이상은 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옆자리 친구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고3, N수를 마치고 곧바로 다시 수능을 준비하기에 이미 기본 개념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개념은 빠르게 끝내고 기출 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거나, 고등학교 시절에 쌓아둔 공부량이 많지 않은 수험생들이 개념을 허술하게 끝내고 바로 문제 풀이를 시작하면 마음만 조급해지고 기초가 흔들려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고 있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것에 집중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밟아 왔던 필수적인 길이고,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온 후에 페이스가 무너지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대보다 잘 본 학생들은 자만하고 들뜨면서 공부량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못 본 학생들은 생각이 많아져 내

가 하고 있는 공부, 듣고 있는 강사, 품고 있는 문제집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놔버리거나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08시에 자리에 앉아서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씩을 가지고 23시에 집에 오는 스케줄을 2월 시작부터 수능 날까지 지켰습니다. 솔직하게 그 모든 시간을 100%의 집중과 효율로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있는 순간에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공부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할 일을 한 것이 가장 큰 합격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는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던 반면, 9월 모의고사는 상상도 하지 못한 부진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 시점이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만회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9월 모의평가에서 수능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시험 직전의 강도 높은 학습과 복습이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막판 스퍼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므로 점수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시고, 마지막까지 의자, 책상과 한 몸이 되어 수능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완주해 내야 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적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만큼 결속력이 강하고, 기회가 밀도 있게, 골고루 제공되는 학교입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어느 대학보다 우리 한국항공대학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망하는 항공교통전공이 있는 항공경영대학을 비롯해 항공경영, 우주공학, 항공공학, 항공MRO, 항공운항학과 까지 넓은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공기 제작, 로켓 제작,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글라이더 동아리와 같은 타 대학에서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기에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이더라도 한국항공대학교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공대중심 학교로 스마트드론공학, 기계공학, 인공지능, 컴퓨터, 반도체, 전자와 같은 주목받는 학과부터 경영전공, 전국에 많지 않은 물류전공까지 다양한 학과를 갖추고 있고 각자 각 분야의 위상도 높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복수전공을 하도록 하고 있고, 큰 제약 없이 1전공과 2전공을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듯 점수에 맞춰 학과에 지원하고, 학교를 다니며 회의감을 느끼고 전과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대학교는 1학년에는

스마트드론공, 시뮬레이션시스템공, 항공운항학과를 제외하고는 단과대학으로 입학합니다. 덕분에 전공 선택을 하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진로를 탐색하기에 용이합니다. 또 학교에서 진로탐구같은 과목을 직접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진짜 비행을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얼마 전,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간만에 본가에 내려가 방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 방학숙제로 만들어 냈던 종이로 만든 비행기 모형, 더 안전한 항공운송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에 제출했던 보고서와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을 방문한 후 받았던, 10년도 훌쩍 넘은 초등학생 시절의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 그려진 우주인증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원하던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먼 길을 돌아서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다시 준비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실패하면 어쩌지?'와 같은 걱정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학교에 합격해서 원하던 학교의 원하던 전공을 다니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했던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우주인증 속 웃고 있는 초등학생의 저를 본 순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해왔던 의심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했던 선택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선택을 의심하기보다는, 앞으로 항공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비행기는 계속해서 선회를 합니다. 거센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내립니다. 뚜렷한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비행기처럼 순탄한 비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어느 대학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없는, 레이다, 인공위성 등을 다루는 항공전자학을 배워볼 수 있디나...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2026학년도 정시전형

시용합대학 김○원
(비야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뽕속까지 이공계열 성향을 가진 학생 중 한 명인데요, 그중에서도 전자회로를 이용하는 공학을 참 좋아합니다. 본래는 무작정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항공대학교를 만나고 나서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워내어 미래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인재가 될 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내가 갈 대학교는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없는, 레이다, 인공위성 등을 다루는 항공전자학을 배워볼 수 있디나...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게다가 NASA, AIRBUS, BOEING 등의 최고의 외국계 항공우주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공모전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저는 한국항공대학교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전공으로는 전자 및항공전자공학, 부전공으로는 반도체시스템공학을 전공할 계획으로 입학했지만, 1학년 1년의 시간동안 너무 특정한 전공에 얽매어 있지 않고 다양한 전공들을 살펴봄에 내가 더 흥미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야는 없었는지 탐방할 계획입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정시 전형을 통해 항공대에 입학했습니다. 정시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능 성적입니다. 대학입시 공부를 치르는 1년은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우수한 성적을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참고하여서 과목별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의 입시요강을 기준으로 항공대학교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탐구(상위 1과목) 25%의 반영비를 적용했는데, 당연히 수학과 탐구 과목에 들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다른 과목을 버리고 수학과 탐구 과목만 공부하라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6월 모

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학능력시험, 각각의 큰 이벤트별로 자신의 1년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어느 과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지, 어느 과목에 더 집중할지를 반드시 생각해 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절대적으로 '꾸준함'을 지켜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겹도록 듣는 뻔한 소리는 그야말로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현역으로 수능을 치르시는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은 생기부 활동, 학교 수업, 피로, 수능을 앞두고 상승생송한 분위기 등에 휩쓸려 수능 공부를 지속하시기 어려울 것이며, 재수생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좌절감과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주변 사람들의 행복한 소식과 대비되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 등에 휩쓸려 그리 쉽게 수능 공부를 지속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한들, 절대로 공부를 오랫동안 놓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수능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개인의 페이스는 모두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포기하지 않으면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슬럼프가 찾아올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냥 공부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잠깐의 휴식과 회복기를 꼭 챙기신 다음, 적은 양이라도 다시금 공부하셔야 합니다. 펜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저는 특별히 약했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국어입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국어는 정말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잘 오르지 않는 과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역 때는 4등급 이상을 받는 일은 꿈에도 없었으며 심지어 재수 때에도 9월 모의고사를 치르는 시점에서도 겨우겨우

3등급에 머물러있었을 만큼 국어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높은 백분위의 2 등급을 받아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평가원 국어 지문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문과 문제를 풀고 정답과 오답을 확인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의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씹어 먹듯이 분석하고 가야 합니다. 글이 제시하는 핵심 주제, 전개 방식, 문단과 문단의 내용을 붙여 읽기 등 평가원이 지문 하나에 담아놓은 모든 논리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흡수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고난도의 지문일 때에는 그 지문 하나를 공부하는데 하루에 7시간을 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경험과 시간이 축적되어서 글을 짚어 누르듯이 읽는 능력이 체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계는 수험생이 혼자서 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인터넷 강의, 현장 강의 등의 학습 보조를 통해서 강의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국어 과목의 실력은 1차 함수가 아니라 가우스함수 형태처럼,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꼭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은 공교롭게도 오전 시간대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졸음이 쏟아지는 상태로 공부하는 등 마는 등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에너지가 마구 솟아서 늦은 새벽까지 공부하고 다시 오전에는 조는 상황이 정말 최악의 패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12시 30분 이전에는 취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되도록 6시 30분 이전에 일어나 수능 시간표 그대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날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분명 당일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복습,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한다든지 부담 없는 공부를 소량 하시고 꼭 쉬어가는 시간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건 절대 안 되겠지요?)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항공대생이 될 여러분, 대학생으로 거듭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미리 전하고 싶습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입생분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된 푸르른 청춘의 싹을 틔워낸 청년분들이겠지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대학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 4년에 있어서 정말 금같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일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자분들의 가르침 아래에서 인제가 될 거름을 준비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나뭇가지들 같이 인연을 맺고, 원하는 일, 활동, 도전을 경험하며 언젠가는 커다란 거목이 될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마냥 그렇게 좋기만 한 시간뿐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모든 것을 나 혼자서 감당하고 부담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꽃을 피워내는 데 필요한 거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입시라는 인생에서 첫째로 마주하는 큰 고난을 이겨낸 여러분은 앞으로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반드시 자신을 믿게 될 테니까요. 진심으로, 그리고 미리 축하합니다. 한국항공대에서 여러분의 비행을 만들어낼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저는 이번 항공대학교 학부 수석 입학자 중 한 명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항공대에 입학할 요령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수능성적을 통해서는 흔히 말하는 입결적으로 더 상위에 위치하는 대학들을 지원하기에도 충분한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한국항공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실한 강점이 있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대학의 전문성과 특화성에서 나오는 비전, 훌륭한 연구 및 대회 실적, 잘 갖추어진 연구 시설과 교내 인프라,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 등등의 요인들이었습니다. 대학입시에만 목매어있는 수험생 시절에는 단순히 곱셈기 식으로만 보이는 순위 나누기에 눈이 팔려서 본인이 정말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를 연구하며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학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도움 되지 않는 생각들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정확히 알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명예와 성공은 자연스레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는 그런 여러분의 노력에 충분히 응당한 결과와 보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비로소 마주한 하늘에 이윅고 펼칠 파란의 날개로 날아오를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논술 전형은 꾸준히 양을 정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적어보는 사람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자유전공학부 류○인
(세종국제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국제계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제계열의 전문 과목과 영어 과목을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그만큼 수학과 과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문·사회과학 계열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제가 선택한 학문과 제 적성은 맞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들, 때로는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론으로 길게 풀어 설명하는 방식이 제 적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무수한 원인과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이 주는 불확실성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에 읽은 각종 과학 도서 속,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고 명확한 논리로 전개되는 과학의 세계가 제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전공 변경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년 내내 인문계열에 집중해 온 터라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돌파구가 바로 한국항공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였습니다. 입학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이과 구분 없이 어느 전공으로든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제가 한국항공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지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논술 기출문제는 항공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한 2개년 치 논술 문제를 구했고, 부족한 부분은 타 대학의 기출문제들까지 폭넓게 풀어보며 보완했습니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BS에서 제공하는 논술 침삭 프로그램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침삭을 받거나, 주변 어른들께 침삭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읽는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가 되는 글이기를 바랐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에게 보여준 후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

탕으로 제가 스스로 침삭한 부분들까지 모아 글을 다시 적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또다시 적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잦은 실수, 유용한 서술어, 빈출 주제와 개념어 등을 모아 나만의 ‘행동 강령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를 활용한 침삭도 병행했습니다. 학교의 기출문제와 제 답안을 시에게 제공한 후 침삭을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의 논리 구조를 재확인하는 데 무척 유용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파고들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답안의 오류를 잡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항공대 입시 논술 시험 당시, 주위 수험생들은 모두 답안 작성을 마쳤음에도 저는 끝까지 답안지를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답안 작성 시간과 실력이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당시에는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작성하던 답안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가 준비한 답안이 출제 의도와 다른 것은 아닌지 걱정하느라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이 상황은 대학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제가 답안 작성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촉박한 시간 안에 글을 써내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 시험보다 10분 단축하여 모의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논술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시간을 줄이기보다 글을 완성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올수록 정해진 시간에 맞춰,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처음 보는 주제와 개념어를 조합해 글을 써야 하며,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도움이 된 것은, 아무리 연습일 지라도 한 번 쓰기 시작한 글은 반드시 스스로 마무리를 짓는 습관이었습니다. 쓰다 보면 논리가 영긴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완성 후 다시 읽어보면 구조가 크게 잘못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시간이 촉박하여 중간에 글을 엮고 다시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자마자 바로 쓰기보다는, 글에 담을 정확한 논리를 세워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끝까지 써 내려가는 연습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수능 이전부터 계속 논술 준비를 했습니다. 항공대 논술은 수능 직후 주말에 치러지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후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렇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논술 답안을 작성하고 첨삭을 받은 뒤, 다시 써보는 방식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논술 전형은 꾸준히 양을 정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적어보는 사람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논술 전형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경쟁률이나 현재의 글 쓰기 실력에 낙담하지 말고 써야 합니다. 논술 글쓰기는 연습하면 무조건 늘입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오히려 글쓰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제 경험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 문장이라도 더 나은 글을 쓰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항공대에 재학하며 가장 크게 만족하는 학교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간 교류 지원입니다. 입학 전 저는 동기들보다 나이도 있고 내성적인 편이라 교우 관계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 신청부터 대학 생활의 팁까지 생생한 정보를 알려줄 선배 멘토와 든든한 동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수강 신청이나 각종 프로그램 신청 등 오롯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미리 친해진 동기들에게 묻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학교생활을 해본 선배의 정보량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멘토의 조언을 받아 학교생활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빌드업(Build-up)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과학을 깊이 배우지 못해 일반물리학 청강 첫 시간에 크게 당황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강의(수학, 물리, 공학, 기초영어 등)가 제공되는 것을 보고 큰 안심을 했습니다. 저같이 문과 계열만 공부하고 온 학생에게는 대비와도 같은 제도입니다. 셋째, 활발한 선후배 교류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출신 선배들이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학습 및 취업, 인턴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학우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총장님의 메시지입니다. 항공대 홈페이지 상단에는 "총장 메시지" 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학 기념의 일회성 글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할까 싶을 수도 있지만, 제게는 이 글이 교직원분들과 교수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한배를 탄 것 같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저를 이로운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깊은 안도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비행기를 타본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공항에서 마주친 대한항공기에 대한 동경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입학 전에는 비행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었지만, 매일 학교를 오가며 항공기를 마주하다 보니 비행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비행기를 운항하거나 만들고, 관제할 우리 동기들의 미래까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입학이 확정된 후 공항에 갔을 때, 커다란 비행기와 보이지 않는 관제탑 너머를 보기 위해 노력했던 것, 멋진 조종사, 공항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직원들을 보며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막연했던 동경이 실체가 될 수 있음에 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항공, 비행기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첫 번째 학교는 한국항공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후회를 만들지 마세요. 후회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남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한국항공대학교라면,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항공경영대학 김○연
(학익여자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꿈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기록부는 다양한 전공과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관제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관심사와 성향을 잘 아는 친구가 추천해준 직업이었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제가 추구하던 ‘책임감’과 ‘리더십’이라는 가치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사는 그 자체로 제가 오랫동안 그려온 이상적인 직업상이었습니다. 3년 동안 희망 진로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저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진로의 변화와 상관없이 제 가치관은 생활기록부에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항공 분야와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친환경 항공기 전환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열감지 드론을 아두이노로 직접 제작하는 등 환경과 항공을 연결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항공으로 진로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쌓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원을 결심한 후, 항공교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를 조사하면 할수록 국내 최초로 항공교통 관제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제사를 꿈꾸는 저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3년간의 학교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쌓아온 역량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우선 저는 면접 준비를 두 달가량 진행했습니다. 수능보다 면접의 비중이 컸기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잡기 막막했지만, 학교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며 면접 반영 비율과 중점 평가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구성했습니다. 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항공교통물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과학동아리 활동이 그러했는데, 처음에는 이 점이 면접에서 불리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전공과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활동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과학동아리에서의 실험 과정을 통해 협력 정신과 위기대처 능력을 키웠다는 점을 면접에서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면접 준비 방법으로는 ‘노션(Notion)’ 앱을 활용했습니다. 3년치 생거부를 동아리, 교과, 세특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활동마다 핵심 개념, 수행 내용, 배운 점을 코멘트로 달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학년 분량을 정리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면접이 중요한 학생이라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시길 추천합니다. 정리가 끝난 후에는 내용을 출력하여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숙독했습니다. 아무리 직접 한 활동이라도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완전히 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변을 통째로 외우려 했으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진정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질문이 기본적일수록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옵니다. 따라서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감 없이 말해보고 이를 녹음해 보세요. 그다음 문장이 아닌 핵심 키워드만 뽑아 기억하고, 실전에서는 녹음할 때처럼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교과 학습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균형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성적을 위한 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봉사활동, 학생회, 동아리, 교내 대회 등 학교의 모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에는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들이 담겼고, 이것이 면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3년 동안 부학년장을 맡았던 경험은 리더십과 공동체 역량을 꾸준히 쌓을 수 있었던 핵심 활동이었습니다. 학년장을 보조하며 학년 전체의 크고 작은 일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서 “부학년장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관리와 협업 능력을 자신 있게 어필하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로가 늦게 바뀐 약점을 솔직함과 환경적 배경을 결합한 전략으로 극복했습니다. 면접 중 ‘1학년 때 의료 분야 활동이 많은데 진로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 다. 저는 이에 대해 인천에 거주하며 어릴 적부터 항공기를 자연스럽게 접해온 지리적 환경이 제 무의식중에 항공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로 결정이 조금 늦었던 만큼, 그 선택의 타당성을 면접관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로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학년장 활동을 통해 증명된 공동체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어필한 전략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면에서는 수행평가와 조별 활동을 절대 미루지 않는 성실성을 유지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수업 직후 반드시 선생님께 질문하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취도 향상은 물론,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 더욱 풍성하게 기록되는 결과로 이어져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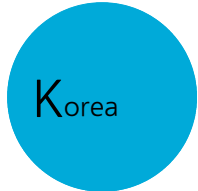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는 여러분의 막연한 꿈에 구체적인 향로를 그려주는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항공교통관제사라는 꿈을 품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곳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던 순간, 2학년 때 무너졌던 제가 결국 해냈다는 사실이 실감나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전의 저에게 다시 물어도 제 선택은 단연 한국항공대였을 것입니다. 사실 저의 고등학교 생활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1학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기대를 품었지만,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최악의 수학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평소대로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 남들은 그동안 나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3학년의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고, 지금 돌아봐도 그 시

간에 대한 후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후회를 만들지 마세요. 후회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을 때 남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한국항공대학교라면, 지금 이 순간의 노력이 반드시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훗날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가진 최선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세요. 입학한 지 이제 한 달 남짓이지만 저는 벌써 우리 학교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자리 잡힌 학습 분위기에 많이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1년 전 제가 상상만 하던 이 즐거운 일상이 이제는 여러분의 현실이 될 차례입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은 머지않아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 엔진이 될 것이니, 이 도전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내년 봄, 활주로 위에서 당당한 현대인으로 만날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우리 학교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강의실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 우주산업의 심장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느낀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매력은 살아있는 실무 환경입니다. ‘한진&항공대 아이디어 허브 공모전’, ‘Airbus 101 공모전’처럼 세계적인 항공 기업들과 협력하는 공모전 기회가 많아 강의실 밖에서도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코딩이나 어학 등 부족한 역량을 채워주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 스스로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항덕’ 친구들을 설레게 할 독보적인 동아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내 유일의 글라이더 동아리 ‘학생활공회’부터 열기구 체험이 가능한 ‘리뷰터’, 행글라이더를 제작하는 ‘송골매’ 등 오직 항공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낭만이 가득합니다. 특히 ‘3중 멘토링’ 시스템은 갓 입학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재학생 선배님들의 세심한 조언 덕분에 막연했던 관제사라는 꿈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항공대학교에 오셔서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대학 입학을 앞둔 지금의 시간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2026학년도 정시전형

공과대학 홍○아
(저현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평소부터 항공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고, 항공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또한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때 공항에 갈 때마다 느꼈던 건 단순히 비행기가 크다 멋있다 이런 감정 보다는 “이 안에 타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는 묘한 설렘이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간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 일하러 가는 사람,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에 항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항공은 물류 관광, 외교 등 여러 분야와 연결되며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공을 통해 국가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연결되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고 그 시작점으로 항공 관련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 항공 산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을 배우면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각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배움이 저에게는 단순한 대학 생활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학교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 관리에 집

중하며 공부 습관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학교에 등교하는 생활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고 오히려 하루를 더 길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일찍 도착하면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하루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아침 수능 국어 기출 지문을 풀며 수능시간표에 맞게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침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준비 시간이 아니라 하루 공부의 흐름을 잡아주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역시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후에 복습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가능한 한 필기를 꼼꼼하게 하며 중요한 개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과서를 다시 읽거나 스스로 정리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학교에서 주어지는 자습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습 시간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하루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습 시간이 시작되면 그날 해야 할 공부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한 분량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습 시간에는 문제 풀이와 개념 정리를 병행했습니다. 개념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통해 적용해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고 틀린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틀렸는지 스스로 분석하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점차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동안 특별한 사교육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과 스스로의 노력에 집중하며 공부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등교하고 학교에서 주어지는 자습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노력했던 경험은 단순히 성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실함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생각하는 한국항공대학교 합격 요인은 무엇보다 수험 기간 동안 꾸준한 생활 습관과 성실한 학습 태도를 유지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루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며 공부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해야 할 공부량을 미리 정해 두고 계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으며 국어 수학 영어뿐만 아니라 탐구 과목까지 균형 있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습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이 형성되었고 긴 수험 기간 동안에도 학습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도 중요한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하여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자습 시간을 활용해 다시 정리하고 복습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나 시험 이후에는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분석하며 왜 틀렸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점차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업과 자습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스로 학습을 이어갔던 경험이 학업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합격 요인은 목표 대학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 이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성격 수준과 공부 방향을 계속 점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과목이나 단원을 중심으로 공부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던 시기에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차 학습 방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수능 시험까지 꾸준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수능 준비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공부를 이어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학습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자기 관리가 모여 결국 한국항공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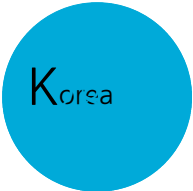
예비 항공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대학 입학의 앞둔 지금의 시간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항공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이라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리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시간이 많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입학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예비 항공대생이라면 자신이 왜 이 대학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합격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기보다 앞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대학 생활 자체가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 가는 과정이 바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험은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도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 만나는 인연은 때로는 오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성장하는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생활에서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자유로운 환경이지만 그만큼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업과 과제,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대학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와 휴식, 그리고 다양한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속에서 자신만의 대학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항공대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대학 생활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한 순간도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만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경험 자체가 성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너무 비교하거나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학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대학 생활이 단순히



학업의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저는 목표를 정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대학 지원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시 지원에서 가군 나군 다군 모두 한국항공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을 나누어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 온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 학교에 세 번 지원하는 선택이 다소 과감한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합격 가능성만을 계산하기보다는 제가 진심으로 가고 싶었던 대학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지원 역시 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정시 가나다군 모두 같은 대학을 지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단순한 지원 전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목표에 대한 확신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가 가장 원했던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가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학 생활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시작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KAU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공모전, 그리고 국제 교류 경험을 통해 항공기 설계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함께 갖춘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미래 항공 산업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자 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공과대학 김○송
(일산대진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릴 때부터 막연히 하늘을 나는 비행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 관심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점차 구체적인 목표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미분적분학을 배우며 위치를 미분해 속도를 구하고, 다시 이를 미분해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이 실제 비행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단순한 흥미에 그치지 않고 '다단 로켓의 효율 비교'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미적분 개념을 실제 로켓의 구조와 성능 분석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이 실제 공학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진로 의지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공 산업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지며, 수소 항공기와 같은 친환경 기술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까지 고민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항공기를 이용하는 입장을 넘어, 항공기를 설계하고 미래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중심의 환경을 갖춘 KAU 공과대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 설계 및 제작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과 캡스톤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공모전 참여 기회는 저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검증해볼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과 해외 파견 기회는 글로벌 항공 산업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의 관심은 호기심에서 출발해 수학적 이해와 탐구 경험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실제 항공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발전하였습니다. KAU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공모전, 그리고 국제 교류 경험을 통해 항공기 설계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함께 갖춘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미래 항공 산업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자 합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수리논술을 위해 별도의 논술 수업이나 교재를 중심으로 준비하기보다, 수능 수학 학습 과정 자체에 집중하며 논리적인 풀이 능력을 기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풀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수능 수학에서 4점 문항은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개념과 사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약 1년 동안 이러한 고난도 문항들을 반복해서 풀며, 문제 접근 방식부터 식의 전개,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저의 사고 흐름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 풀이를 선택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서술 능력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KAU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년 기출 문항을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이후 해설지를 통해 제가 작성한 풀이와 비교하며, 요구되는 서술 방식과 논리 전개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고 핵심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답안을 보다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데에 그치지 않고, 풀이의 전 과정을 스스로 설명하며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자연스럽게 저의 사고 흐름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서술형 답안 작성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 기출

문항을 분석하며 출제 의도와 풀이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안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한 점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채점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답안을 작성하고자 했던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느꼈습니다.

◆ 예비 향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한국항공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항공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기 설계 및 제작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캡스톤디자인, 그리고 여러 공모전과 해외 교류 프로그램까지, 단순히 배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학년이지만, 현재 에어버스 공모전에 참여하며 항공 산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항공 기술과 산업이, 직접 고민하고 설계해보는 과정을 통해 훨씬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항공대학교는 학년과 관계없이 스스로 도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 시절 수리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화려한 풀이보다 기본에 충실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수능 수학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저의 사고 흐름을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서술 능력으로 이어졌고, 논술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에 집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과정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믿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은, 그동안의 꾸준한 학습에서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있을 대학 생활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신다면, 분명 이곳에서 값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기타 사랑하고 싶은 말

아직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1학년이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이 더 큰 의미로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씩 채워가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수험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과정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

고 계실 예비 향대인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보다는 하루하루 쌓아가는 과정에 집중하시다 보면, 분명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 KAU 새내기 입학수기

제가 항공대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입사라는 긴 여정을 지나며 제가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전형

시용합대학 김○해
(기흥고등학교)



◆ KAU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

어린 시절의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유독 좋아했습니다. 특히 공기가 맑은 겨울 밤, 까만 하늘에 수놓인 별들을 바라보는 시간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저만의 망원경을 사기도 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하늘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레 별 사이를 가로지르는 비행기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 비행기들은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저를 자연스럽게 항공 우주와 비행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평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항공 분야를 공부할 때도 항공기 관련 사고 사례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항공기가 망망대해와 어둠 속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탐구하던 중, 위치 파악의 핵심인 GPS와 위성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GPS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신호 오차가 항공 안전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정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러한 오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계산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보정하는 AI 기술을 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강력한 AI를 활용한다면 기존 GPS의 오차를 극복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시용합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2학년 때 전공으로 항공전자를 선택하여 GPS와 위성통신의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AI와 항공전자를 융합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차 없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통신 기술을 구축하고 싶기 위해 항공 전자와 인공지능을 공

부할 수 있는 시용합대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저는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며, 제가 만든 기술이 세상에 널리 쓰이고 특히 항공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물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전자기학에 큰 흥미를 느꼈지만, 초기에는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밤낮을 새워가며 깊이 몰두한 끝에 이론으로만 접하던 전자회로를 직접 설계해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고교 시절에는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실험을 실행할 순 없었지만, 이 갈증은 대학에서 저만의 기술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 생활기록부를 전자통신 분야로 계속해서 채워나갔습니다. 3학년이 되어 AI와 코딩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전자회로와 코딩을 결합한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파이썬만 접해본 제게 C언어는 큰 벽이었지만, 매일 코딩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하며 끈질기게 공부한 끝에 결국 ‘아두이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힘들지만 정말 재밌다”라는 전율은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3년간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인간적으로 성장했으며, 스스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전 교과 선생님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생기부를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주도적인 태도는 면접 준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면접 4주 전부터 생기부를 철저히 분석해 120개의 예상 질문을 뽑았고, 그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마저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임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합격요인

제가 항공대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입시라는 긴 여정을 지나며 제가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스스로 시간을 내어 제가 무엇에 가슴 뛰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리더형인지, 혹은 묵묵히 파고드는 탐구형인지 등)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의 성향을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있었고, 이는 곧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과 활동을 선택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나를 정확히 알았기에 힘든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쳐도 긍정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와 긍정적인 회복탄력성이 있었기에, 저는 흔들림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 본교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관심 대상을 스스로 탐구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이 저를 합격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 예비 현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

이 글을 읽고 계신 예비 현대인 여러분은 아마 누구보다 항공기에 대한 열망이 클 것입니다. 저는 그 열정 자체가 이미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선택을 믿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공대학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학교 관련 정보가 담긴 글들을 찾아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특히 대학에 합격하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메모지에 적어 독서실 책상 벽에 하나씩 붙여두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메모지를 볼 때마다 "반드시 저 캠퍼스에 발을 들이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것은 힘든 수험 생활을 버티게 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위해 처음 학교에 발을 내디뎠던 날은 유독 바람이 쌀쌀하고 날이 흐렸습니다. 그때 저는 '반드시 합격해서 따뜻한 봄날의 교정을 다시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을 믿고 꾸준히 전진한다면, 그 간절함이 합격이라는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여러분은 이미 항공대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멈추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끝없는 비행의 시작을 항공대에서 이뤄내길 응원합니다.

◆ 기타 자랑하고 싶은 말

면접을 보러 처음 학교에 왔던 날, 교정에 세워진 대한항공 비행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며, 이 학교의 새내기가 되어 다시 이 비행기를 마주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12월의 어느 날, 집에서 화면 속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마주했을 때 저

는 그저 평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꿈꿔온 모든 일상이 이제는 현실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때 흘렸던 기쁨의 눈물과 벅찬 감정은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꿈꿨던 따뜻한 계절 속에서 바라보는 항공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교정의 비행기들은 그때보다 훨씬 예쁘게 느껴지고, 제 휴대폰 배경화면은 어느새 제가 직접 찍은 '햇살 아래 대한항공 비행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곳에서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며 항공기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항공대학교는 그 꿈을 실현해 주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예비 현대인 여러분도 머지않아 제가 느꼈던 이 벅찬 감동과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꼭 함께 느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